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23~'28년간 총 414억 원 지원
- 금년 한국해양대, 경운대 2곳 신규 선정, 5년간 각각 54억 원 내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재 중견기업-대학-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6년간('23~'28) 총 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3개 대학(공주대, 울산대, 창원대)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한국해양대, 경운대 2곳을 신규 선정했으며, 5년에 걸쳐 각 과제당 5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지역 대학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도 참여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참여 대학원생을 채용해 기업과 대학이 상호 동반성장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❶한국해양대는 (주)파나시아, 효성전기(주), (재)부산산업진흥원 등 3개 참여기관과 함께 해양분야 축방향자속형(AFPM) 전동기 원천·첨단기술 확보 과제를 수행하면서 4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❷경운대는 아주스틸(주), (주)피엔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3개 참여기관과 제조장비·공정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제어 핵심·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융합형 고급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동 사업은 지역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난과 이직문제를 해소하고, 채용인력이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기간(6개월~1년) 없이 바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케 하는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향후 타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370)
	중견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심상수 (044-203-4373)

참고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지역 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
- (기간/예산) '23 ~ '28년(6년) / 총 414억원*
 - * 국비 270억원, 지방비 54억원, 민간 90억원
- (지원규모) 과제당 5년간 최대 54억원 지원(국비 45억 + 지방비 9억)
-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수도권 제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이며, 중견기업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지원내용) 지자체-대학-혁신기관 등과 중견기업이 협력하는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성 및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 중견기업의 수요기술을 보유한 대학 내 연구실을 「중견기업 혁신 연구실」로 지정하여 공동R&D 및 인력 양성 수행

□ 선정과제(5개) 현황

년도	과제명	지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23	미래형 모빌리티 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개발 기반 문제해결형 R&D 인재 양성	충남	공주대학교	코넥,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우주항공/소형원전/방위산업 특화 적층제조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경남	창원대학교	PK밸브, 위딘
	지역 이차전지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울산	울산대학교	코리아PTG, 코스모화학, 울산테크노파크
'24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지역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효성전기(주), (주)파나시아, (재)부산산업진흥원
	소재분야 장비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경북	경운대학교	아주스틸(주), (주)피엔티, 구미전자정보기술원